

## 고려 말 조선 초 문인-지식층의 분운(分韻)에 대하여\*

심경호\*\*

1. 머리말
2. 시회 및 소집에서의 문자 유희와 분운
3. 고려 말 조선 초 문인-지식인 집단의 형성과 분운
4. 맺는 말

### <국문초록>

근대 이전의 문인-지식인들은 시문을 통해서 지적 교류를 행하고 당파와 집단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신흥 사대부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문학적 모임에서 분운을 사용한 예들을 살펴보았다.

분운은 지식층의 시회와 소집에서 상호 간의 유대와 작시 수련을 위해 매우 중시되었다. 한국에서는 그 관습이 대개 원나라 강점기의 고려 중엽에 발아하여 고려 말에 과거제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면서 문인-지식인 집단이 연속성을 지니면서 문화적,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던 때에 극성하였다. 고려 중엽에는 과거에서 과부(科賦)가 매우 중시되어, 문인들이 즉석에서 평측상간의 여러 운자들 활용하는 것을 평소 훈련해 두었으므로 분운의 즉석 창작이 가능한 문인-지식층이 성립하였다. 이제현이 신예의 전송연에서 이루어진 분운 연장의 시축에 서문을 쓴 것은 작시가 자유자재한 문인-지식층이 그 시기에 두텁게 존재하여, 문학과 정치의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본고에서 다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외직으로 나가는 관료나 과거 후 귀근하는 유생에게 전별연을 베풀면서 분운 연장하는 일이 정착되었다. 이 분운의 방식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2) 고려 말에는 좌주를 위한 연회에서 분운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좌주문생의 명죽회는 조선시대에 회시 제도가 정착되면서 축소되었다.

(3) 고려 말에는 승려를 중심으로 분운 연장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전기에 배불론이 대두되면서 승려를 중심으로 하는 분운 연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4) 고려 말, 조선 초에는 국왕을 호종하는 문신들이 국왕을 위해 송축한 시에 호종신들이 분운하는 사례가 있었다. 송축시를 이용한 분운 연장은 조선 전기 이후 찾아 볼 수 없다.

(5)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내외간상을 당하여 시묘 생활을 할 때 그것을 기념한 시를 만들고 또 분운 연장한 시를 시권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조선중기 이후로는 문인-지식인들이 사회와 시사를 갖는 일이 많아져, 후기에는 대단히 번성하였다. 이때에는 분운 구호와 분운 연장 등이 더욱 많았을 것이다. 분운은 문인-지식층이 문학 양식과 기호를 공유하는 장(場)의 의미가 문학 실질 내용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

핵심어 : 분운(分韻), 연장(聯章), 이제현(李齊賢),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명죽회(名簇會), 좌주(座主), 문학의 장(場)

## 1. 머리말

문헌 자료를 열람하다보면 전에 과안(過眼)하였던 자료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예가 많다. 정도전의 「명나라 서울로 가는 정안군(이방원)을 전송한 시의 서(送靖安君赴京師詩序)」는 그 한 예이다. 1394년(태조 3, 갑술) 6월 7일(을해)의 전송연 뒤에 지은 글이다.<sup>1)</sup> 이 글은 조선 초 명나라와의 갈등

으로 태조 이성계가 친아들을 명나라에 입조시켜야 하였던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조선의 표전문을 트집 잡아 요동에 조선 사절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1394년에는 태조의 친아들을 보내라 하였다. 태조는 이방원을 적임자라 여겨, 표(表)를 지참한 조반과 전(箋)을 지참한 남재와 함께 명나라에 가게 하였다.<sup>2)</sup> 명나라가 국왕 친아들 입조를 요구해 온 것은 정도전의 요동 정벌 계획의 첩보를 입수하고 조선 측을 압박한 것이었다. 조선과 명나라의 갈등을 야기한 장본인인 정도전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명나라로 떠나는 이방원을 위해 이 서문을 써 주었기에, 이 서문은 문면의 의미보다도 맥락의 의미가 더욱 크다.<sup>3)</sup> 1398년(태조 7, 무인) 윤5월 29일(갑진)에 정도전은 자신이 작성한 『진도(陣圖)』를 여러 도의 절도사와 군사들로 하여금 약속을 정하여 갑자기 연습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명 태조가 죽고 황태손이 즉위하였고, 정도전이 제1차 왕자의 난 때 죽음으로써 조선의 요동정벌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중요한 점은, 당시 정안군을 개경의 선의문 밖까지 전송 나온 부모들이 노래(곧 찬송류의 악장)를 짓자 성석린(成石璘)이 그것에 이어 시를 지은 후, 조준(趙浚) 이하 당대의 고관이 모두 분운하여 시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성석린의 시는 칠언절구로 모두 28자였기에, 28명의 사대부가 분운하였다. 『동각잡기』에 실려 전하는 성석린의 시는 다음과 같다.

아들 알아주고 신하 알아주신 성상의 감식이 밝으신데

사대하는 정성은 우리 백성 생성키 위함이로다.

1) 鄭道傳, 「送靖安君赴京師詩序」(甲戌), 『三峰集』, 한국문집총간5. “恭惟殿下畏天事大, 克謹侯度, 罔或有違, 天子嘉之, 命親男以朝, 而靖安君寔行, 乃以六月乙亥, 殿下率群臣拜表于壽昌宮, 儀仗分左右, 樂部導前, 送至于宣義門外. 都人父老填溢街巷, 瞻望咨嗟, 皆曰: ‘吾君一遣子而萬民賴以安, 盍歌之, 俾後子孫無忘也.’ 相與歌曰: ‘天子之明兮, 吾君之誠兮. 之子之行兮, 爲斯民開太平兮.’ 門下侍郎成石璘繼其歌而賦之, 侍中平壤伯已下諸大夫皆和焉. 分韻成詩, 凡二十八篇, 以序文屬道傳.” 번역문은 고전번역원 번역을 따르되, 일부 윤색하였다.

2) 이방원은 명나라 태조(주원장)를 두세 차례 만나 현안을 해결하였다. 『용비어천가』에 그 사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당시 이방원은 부왕 태조의 명을 받아서이기는 하였지만 명나라의 ‘국왕 친아들 입조’ 요구에 자당(自當)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잡게 되었다.

3) 심경호 역, 『삼봉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사람들이 말하길 일만 리 밖 조선의 경사가  
 더위 장마 무릅쓰는 이번 걸음에 있다 하네.  
 知子知臣睿鑑明      畏天誠意爲生成  
 皆言萬里朝鮮慶      在此炎霖跋涉行

당시 문신들은 이 시의 28자를 가지고 제비 뽑아 각각 한 수씩 지었다. 첫 글자 ‘知’를 가지고 지은 시는 이무방의 「知자 운을 얻어 정안군을 전송하는 시(靖安君餞詩得知字)」로, 『동문선』에 전한다. 상평성 四支운의 장편 오언고시이다.<sup>4)</sup> 또 정충은 ‘예(睿)’자를 뽑아 「정안군이 명나라 서울로 가는 것을 전송하다(送靖安君赴京師)」라는 제목의 장편 오언고시를 지었다. 거성팔제(去聲八霽), 거성십괘(去聲十卦), 상성팔제(上聲八霽)의 운들을 통합하였다. 『복재집(復齋集)』에 실려 있다.<sup>5)</sup> 성석린도 당시에 분운하여 시를 지은 듯하다.<sup>6)</sup> 하평성 七陽운의 칠언절구이다. 그런데 성석린의 문집 『구정집(龜亭集)』의 부록에는 이 시를 남반(南磐)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다.<sup>7)</sup> 조선 후기의 홍직필(洪直弼)은 태종이 잠저 때 동경(同庚)의 20인과 「정미갑계도(丁未甲契圖)」를 제작한 것을 보고 글을 남겼는데, 정미갑계의 인물들도 정안군을 위한 분운 연장(聯章)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8)</sup>

- 4) 李茂芳, 「靖安君餞詩得知字」, 『동문선』 권5 五言古詩 [운자: 夷, 堀, 湄, 時, 思, 規, 脂, 岐, 知, 詩, 斯, 基, 儀]
- 5) 鄭總, 「送靖安君赴京師」, 『復齋集』上 詩. “皇明銜宇內, 聲教漸四裔. 包荒示大度, 字小施仁惠. 吾君謹述職, 朝聘無虛歲. 惟帝感至誠, 丁寧垂勸戒[去聲十卦]. 國號既賜更, 使華反相繼. 九重達四聰, 聖聽同舜帝. 賢侯爲君親, 跋涉觀天陞[上聲八霽]. 敷奏定詳明, 艱難必康濟[上聲八霽]. 異渥荷三接, 膚功高萬世[去聲八霽]. 端知東還日, 其樂方洩洩. 離時正炎熱, 關山更迢遞[上聲八霽]. 行役非不勞, 豈爲一身計[去聲八霽]. 且當加餐飯, 好去益勉勵 [去聲八霽].”
- 6) 成石璘, 「太祖朝 太宗潛邸靖安君時 皇帝諭遣親男 遂命太宗如京 公作詩以獻」, 『獨谷集』卷上 詩, 한국문집총간 6. “知子知臣睿鑑明, 事天誠意爲生成. 皆言萬世朝鮮慶, 正值冊冊跋涉行.”
- 7) 수행한 남반을 위한 시축도 별도로 만들어졌는가, 같은 시가 남반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구가 다르다. 成石璘, 「贈南參贊(南磐)隨靖安君如京」, 『龜亭遺藁』下 附錄. “知子知臣睿鑑明, 畏天誠意爲生成. 皆言萬事朝鮮慶, 在此炎霖跋涉行.”
- 8) 洪直弼, 「敬書丁未甲契圖後」, 卓光茂, 『景濂亭集』, 한국문집총간 6. “丁未甲契圖, 卽我太宗在靖安邸時, 與同庚諸人, 設契而成圖者也. 有若李仲卿·李伯舍·李涉·閔壽山·張允和·黃允正·曹致·朴礎·權希達·李揚·李伯有·卓慎·朴翱·柳善·朴實·柳濕·金素·徐選·金自知·林篠二十人爲同契, 而各以降生月日爲序次焉. 於戲! 太宗誕降之丁未, 今爲四百八十四歲, 而累經兵燹, 公私文獻之可徵者幾希, 斯圖也獲全於桑海質遷之餘者, 亦可異焉. 崇昔帝王之

근대 이전의 문인-지식인들은 시문을 통해서 지적 교류를 행하고 당파와 집단을 형성하였다. 필자는 조선 지식인들의 문자 활동과 지적 교류 양상에 대해 다음 몇 가지 국면을 중심을 살펴본 바 있다.<sup>9)</sup>

- (a) 제한적 의사소통으로서의 차운(次韻), 시평(詩評)과 간찰(簡札) 왕복 :  
선인들은 수창(酬唱)과 간찰 왕래를 통해 공감, 논쟁, 추인,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창에는 오론(晤論)을 대신하는 양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소집(小集)과 연집(讌集)의 시회(詩會)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다.
- (b) 정서적 교감과 집단정서 창출 방식으로서의 시회(詩會) :  
사대부 문인이나 중간 계층의 지식인들은 분운(分韻)·경작(競作)·연구(聯句)나 호운(呼韻)·호자(呼字)에 의한 즉흥시 제작을 즐기거나 주령(酒令)의 하나로서 여러 규식을 사용하였다.
- (c) 서발문과 비지·행장을 통한 평론과 의론 : 서발문은 잠재적 의론과 논쟁을 유발하였다. 또한 비평은 시문 교환을 통해서 감수성과 사유관념을 타자에게 제시하고 평가를 받는 양식으로서 의미를 지녔다.
- (d) 간역(刊役)과 강학(講學)을 통한 학맥의 확인 : 근대 이전과 일제강점기의 지식인들은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사승을 확인하고 집안 어른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가승을 확인하였다. 한편 조선후기의 학인들은 강학을 통해서 결속을 다졌다.
- (e) 공동저술과 학단(學團)의 형성 : 조선시대에는 학맥과 학파가 공동 연구를 행한 예도 있었다. 김진(金搢)이나 정약용의 예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위의 (b)에 주목하면서, 특히 고려 말 조선 초에 신흥 사대부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문학적 모임에서 분운을 사용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로서는 문단의 형성이 곧 정치권력의 향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문단의 형성은 특정한 시적 유희의 공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

生, 必有休應, 天命所屬, 曆數斯在, 三才協和.”

9) 심경호, 「조선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413~449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시 관습의 공유를 고찰하는 일은 문단 형성, 그리고 정치집단의 결속 사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 2. 시회 및 소집에서의 문자 유희와 분운

우리나라의 시회에서는 같은 제목으로 전원이 시를 짓는 경작(競作) 이외에, 선창(先唱)의 원운(原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시를 짓는 창화(唱和), 전원이 집단으로 창작하는 연구(聯句), 다른 사람이 운자를 부르는 대로 시를 짓는 호운(呼韻), 특정한 글자를 다른 사람이 부르는 대로 시 속에 사용하여 짓는 호자(呼字), 각자가 운자를 뽑아서 시를 짓는 분운(分韻) 등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여러 가지 규칙(規式)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분운은 약간의 글자를 운자로 지정하고 각 사람이 운자를 골라 그 운에 따라 짓는 것을 말한다. 대개 옛 시의 구절에 들어 있는 글자를 무작위로 골라서 그 글자의 운자로 시를 짓는다. 부운(賦韻), 탐운(探韻)이라고도 한다. 본래 연구(聯句)에 사용하였으나, 차츰 연구에 한하지 않고 널리 활용하였다.<sup>10)</sup> 고염무(顧炎武)는 분운이 당나라 때 취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양나라 때 분운 작시의 방식이 있었던 듯하다.<sup>11)</sup>

분운의 때에 한 글자만 뽑는 것이 아니라, 어구를 뽑는 예도 있다. 고려 말 이곡(李穀)의 「소백수(蘇伯脩)가 호성(湖省)의 참정(參政)으로 가는 것을 전송할 적에 시운(詩韻)을 나눠 동화진(東華塵)을 얻다」는 소식(蘇軾)의 「박주(薄薄酒)에서 어구를 따온 예이다.<sup>12)</sup>

10) 측천무후의 『則天幸流杯亭宴詩』는 분운부시한 것을 각석한 것이 있었다. 백거이의 「花樓望雪命宴賦詩」에는 “素壁聯題分韻句, 紅爐巡飲暖寒懷.”라 하였다.

11) 『日知錄』 권21 「詩題」. “唐人以詩取士, 始有命題分韻之法, 而詩學衰矣.” 험운(險韻)으로 시를 짓는 것을 경병(競病)이라고 하는 고사에서 분운의 이야기가 나온다. 곧 『남사(南史)』 「조경종전(曹景宗傳)에 보면, 양(梁)나라 조경종(曹景宗)이 개신할 때 양 무제(梁武帝)가 화광전(華光殿)에서 잔치를 베풀고 연구(聯句)를 시험하여 심약(沈約)에게 부운(賦韻)하게 하였던바, 험운인 경병(競病) 두 자만 남았을 때 조경종이 최후로 참여하여 바로 지어 쓰기를, “떠날 땐 아녀들이 슬퍼하더니, 돌아오매 피리와 북 다투어 울리네. 길가는 사람에게 묻노니, 광거병 그 사람과 과연 어떤고? [去時兒女悲, 歸來笳鼓競. 借問行路人, 何如霍去病.]”라고 하였다고 한다.

최치원의 『계원필경집』에는 분운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 때 임춘(林椿)과 이규보(李奎報)에 이르러서는 분운의 예가 산견된다. 단 이때의 분운은 연운(演韻)인지 분운 연장(聯章)의 예인지 명확하지 않다.

임춘이 ‘산수우(山水友) 조통(趙通, 자 亦樂)에게 준 시에, 분운하여 歸자를 얻어 상평성 五微운으로 지은 칠언절구가 있다.<sup>13)</sup> 또한 임춘이 학사(確師)를 위해 분운하여 지어준 오언장편 고시도 있으나 분운 연장은 아닌 듯하다.<sup>14)</sup>

한편 이규보는 「또 분운하여 악(岳) 자 운을 얻다[又分韻得岳字]」시를 남겼다. 백량체(柏梁體) 형식으로, 통압을 하였다.<sup>15)</sup> 이외에도 여러 분운 창작의 시를 남겼는데, 분운 연장의 산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198년(신종 1)에 최당(崔讜)이 쌍명재(雙明齋)를 지은 후, 1203년에 해동 기로회(海東耆老會)가 성립하였다. 1206년(희종 2, 병인)에 최당의 아우 최선(崔詵)이 칠순에 접어들게 되자 소장을 올려 사직을 하고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곧바로 그림 속에다 그의 초상을 첨가해 넣었고 박인석(朴仁碩)이 이 일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백거이의 낙중구로회(洛中九老會)를 모방한 구로회가 성립하였다. 이인로는 원로들 사이를 따라다니며 시문

12) 李穀, 「送蘇伯脩參政湖省 分韻得東華塵」, 『稼亭集』 권14 古詩. “東華塵天衢, 咫尺要路津. 金門曉開相君至, 千車萬馬如雲屯. 茫茫四顧烟霞集, 但見觀闕雙嶙峋. 爭名於朝自古昔, 揮汗拂面誰敢噴. 男兒有爲在昭代, 北窓高臥知何人. 致君堯舜須讀書, 儒冠未必皆誤身. 我公臺閣名籍籍, 平生物議歸經綸. 南維分省豈得久, 鳴鑾又入東華塵.” 소식은 「薄薄酒」에서 “서호의 풍월이 동화의 뿌연 먼지만 못하다.[西湖風月不如東華軟紅香土]”라는 앞서 사람의 희어를 인용해서 “은거하여 뜻을 구함엔 의리를 따를 뿐, 동화문의 먼지나 북창의 바람은 아예 계교치 않네.[隱居求志義之從 本不計較東華塵土北窓風]”라고 하였다.

13) 林椿, 「趙亦樂將隱居城南 分韻得歸字」, 『西河集』 권1 古律詩. “得車珣時性多違, 洗耳踰垣世亦非. 誰似先生嫌異俗, 雲山城市兩忘歸.”

14) 林椿, 「九月五日 與友人遊龍興寺海雲房 確師求詩 分韻得閣字」, 『西河集』 권2 古律詩. “麀鹿性難馴, 城市非所樂. 魚龍不厭深, 久思江湖躍. 而我心不羈, 矯翼望寥廓. 嗟爲名所牽, 宿志負丘壑. 爲有相携人, 晚步同出郭. 崎嶇入幽洞, 巖谷如棋錯. 深溪亂清流, 數里橫野杓. 蒼然暮靄間, 孤塔青山脚. 黃昏始投寺, 古殿鳴風鐸. 明月上峯頭, 松陰寒落落. 高人笑相迎, 笑語破寂寞. 壺傾大道漿, 清夜開小酌. 坐久渾不寐, 狂吟雜戲謔. 問子何年中, 構室煥丹腹. 自云嗜爲善, 千金盡傾囊. 焚香禮白毫, 燕坐清風閣. 此外更無事, 豈羨揚州鶴.”

15) 李奎報, 「又分韻得岳字」, 『東國李相國集』 권7. “卜居城東蝸一般, 怯寒無奈縮頭角. 偶然乘興閑出郭, 三尺雪深寒蘸脚. 來打禪扉聲剝剝. 警咳一聲虛谷答. 入門眼見見臺閣. 似見小空隨善覺. 隔林吹火棲鳥落. 渴漢求茶泉欲渴. 一夕忘懷這裡樂. 大勝三笑遊盧岳.”

100여 수를 모아 『쌍명재집(雙明齋集)』으로 엮었다. 최당의 인척인 홍사운(洪思胤)이 흥왕사(興王寺)에서 관각하고 간행할 때 이인로가 「쌍명재 시집 서(雙明齋詩集序)」를 지었다.<sup>16)</sup> 그러나 여기에는 분운 연장의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1320년(충숙왕 7, 경신)에 ‘해동후기로회(海東後耆老會)’가 성립하였는데, 그해 3월 기망에 예문춘추관 주부(藝文春秋館注簿) 최해(崔澗)가 서문을 지었다.<sup>17)</sup> 여기에도 분운 연장의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현의 「신 원외가 북상하는 것을 전송하는 서(送辛員外北上序)」는 분운 연장의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 글은 『익재난고』, 『동문선』, 『여한십가문초』에 수록되어 있고 이른바 고문의 명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신 원외’란 인물이 누구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현은 ‘신 원외’의 재(才), 명(命), 지(志)를 칭송하였다. 신 원외는 ‘동성(東省)의 성랑(星郎)’ 즉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한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의 낭관(郎官)을 지낸 인물로, 이제 조관(朝官) 즉 원나라 조정의 관료로서 부름을 받아 서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전 별연에서 “권 찬선(權贊善) 이하 28가가 정우곡(鄭愚谷)의 사연시(謝宴詩)를 이용하여 분운(分韻) 연장(聯章)한다”고 하였다. 정우곡은 정자후(鄭子厚)를 가리킨다.<sup>18)</sup> 단, 정자후의 문집도 전하지 않고, 그의 「사연시」도 전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신 원외’는 『고려사』 권125 열전 제38 「간신(姦臣)열전」에 입전되어 있는 신예(辛齋, ?~1355)이다. 그는 1343년에 원나라에 갔다가 매서인 원나라의 자정원사(資政院使) 고용보(高龍普)와 함께 돌아왔다. 이 해 충혜왕을 잡으러 원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환관 고용보와 함께 원사(元使)를 도와 왕을 잡아가게 하였다. 곧 이제현의 서문은 1343년에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동문선』에는 당시 정자후의 「사연시」(上, 負, 紛의 글자 사용)를 분운하여 지은 시들이 여러 곳에 나뉘어 전한다.

16) 李仁老, 「雙明齋詩集序」, 『東文選』 권83. 이인로는 그보다 앞서 「雙明齋記」를 별도로 지었다. 『동문선』 권65에 수록되어 있다.

17) 崔澗, 「海東後耆老會序」, 『拙稿千百』 권1.

18) 沈景浩, 「閔思平論」, 『韓國漢詩作家研究』 I, 한국한시학회, 1995.7, 337~366면.



- (1) 金玜, 『送辛員外赴上國』, 『동문선』 권4 五言古詩 [上聲二十六寢韻]
- (2) 金倫, 『送草亭員外歸京師』, 『동문선』 권4 五言古詩  
[운자: 聞, 雲, 文, 紛, 云, 勤, 扮]
- (3) 金師道, 『送辛草亭齋赴上朝』, 『동문선』 권4 五言古詩  
[운자: 赴, 聚, 務, 裕, 堵, 庫, 固, 步, 臚, 慕, 乳, 籟, 暮]
- (4) 張沆, 『辛草亭赴燕都 賦上字爲別』, 『동문선』 권4 五言古詩  
[운자: 讜, 尙, 沆, 量, 榜, 相, 獎, 上, 悵]
- (5) 金光載, 『送草亭員外 得負字』, 『동문선』 권7 七言古詩  
[운자: 右, 友, 朽, 酒, 負]
- (6) 梁溫, 『靈山辛員外將赴燕京』, 『동문선』 권7 七言古詩  
[운자: 意, 戲, 騎, 翠]
- (7) 吳洵, 『上辛草亭齋』, 『동문선』 권21 七言絶句[운자: 翁(1구), 公, 風]
- (8) 洪鐸, 『員外辛草亭之朝上國 諸公分字作詩 得紛字』, 『동문선』 권21 七言絶句 [운자: 君(1구), 雲, 紛]

이것을 보면, 평성운을 사용한 절구만이 아니라 측성운을 사용한 고시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 오언시와 칠언시의 제약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두(金玜)의 「신 원외를 중국에 보내며[送辛員外赴上國]」를 보면, 착운(窄韻)인 상성이십육침운(上聲二十六寢韻)을 일운도저(一韻到底)하였다. 인운(隣韻)을 통압하지도 않았고, 환운(전운)하지도 않았다.<sup>19)</sup>

이제현이 말한 ‘권 찬선(權贊善)은 태자 좌찬선(太子左贊善) 권한공(權漢功)<sup>20)</sup>을 가리키는 듯하다.<sup>21)</sup>

19) 金玜, 『送辛員外赴上國』, 『東文選』 권4 五言古詩. “玉禁初筮仕, 聲名已籍甚. 我時趨下風, 聯裾常懷懷. 潤身德有隣, 照人光可飲. 事業望伊周, 文章鄙曹沈. 青雲起平地, 富貴眞天稟. 握蘭恩光溢, 珥筆霜威凜. 密勿代王言, 獻替無內任. 經邦出教條, 掌試精題品. 功名絕後前, 屈指才五稔. 皇朝亦召用, 寵迫頒天廩. 行見塩梅手, 調羹不失飴. 故人貴言贈, 一言要更審. 風氣殊南北, 願言調膳寢. 京師雖信美, 何如輝畫錦. 歸來扶我王, 使我民奠枕.”

20) 『고려사』 권125 열전38 간신1 권한공. “권한공은 벼슬이 도첨의(都僉議) 정승(政丞)에 이르렀고 예전 부원군(體泉府院君)이 되었으며 원나라 벼슬로 태자 좌찬선(太子左贊善)도 받았다. 충정왕 원년에 죽었는데 시호는 문탄(文坦)이며 적자 권중달(仲達)과 서자 권중화(仲和)가 있었다.”

21) 충목왕(忠穆王) 즉위년 6월 을묘에 서연(書筵)을 두었는데, 그 빈료들은 곧 당시의 일류 문

이하,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분운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운(演韻)

분운 가운데 여러 사람이 함께 운자를 골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옛 사람의 시구를 따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운으로 이용하여 글자 수 만큼 연작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연운이라고도 하지만, 흔히 그냥 분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사람이 분운 작시한 고려시대의 예로는 정포(鄭誦)의 「戊寅正月六日次鐵州 寓城南野人家 微雨霏霏 連日不止 因記東坡‘曉雨暗人日, 春愁連上元’之句 分韻爲詩 寄族叔金史官玠 兼呈同館諸公」에서 볼 수 있다. 소식(蘇軾)의 「신년(新年)」 시에서 구를 골라 혼자서 분운하여 시를 지은 것인데, 그 구의 글자를 하나의 시 안에 모두 안배하였다.<sup>22)</sup> 이러한 예는 조선시대 까지 이어진다.

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신예의 분운에 참가한 인물들과 상당수 겹친다. 『고려사』 제37권 세가 제37 총목왕 참조. “乙卯 置書筵, 以右政丞 蔡河中, 左政丞 韓宗愈, 判三司事 李齊賢, 贊成事 朴忠佐·金倫·權謙, 興海君 裴佺, 直城君 盧永瑞, 判密直司事 李儁, 知密直司事 黃石奇[同知密直司事 黃石奇], 同知密直司事 許伯, 前僉議叅理 辛裔, 僉議叅理 孫守卿, 密直副使 奉天祐·安震·安軸, 典理判書 閔思平, 知申事 金光輶, 右代言 韓仲禮, 左代言 河有源, 右副代言 李公遂, 左副代言 尹忱, 鷹揚軍上將軍 羅英傑, 上護軍 尹之彪, 判通禮門事 趙文璫, 大司成 梁溫, 判典校寺事 鄭怡, 右司議 李衍宗, 左司議 吳珣, 執義 趙淵, 祭酒 田叔蒙, 大護軍 鄭珣, 掌令 李餘慶, 司藝 許齡, 典儀副令 鄭天濡, 宗簿副令 成元度, 起居注 朴允文, 起居郎 宋天鳳, 典理正郎 金君發·李達衷, 都官正郎 金希祖, 左獻納 鄭思度, 持平 金玠·金營, 左正言 尹安之, 典校丞 全忠, 典儀注簿 孫涌, 德寧府注簿 洪俊, 更日侍讀.”

22) 鄭誦, 「戊寅正月六日 次鐵州 寓城南野人家 微雨霏霏 連日不止 因記東坡曉雨暗人日, 春愁連上元之句 分韻爲詩 寄族叔金史官玠 兼呈同館諸公」, 『雪谷集』 上 詩. “村舍絕低小, 廚煙還繚繞. 據牀不得眠, 坐待東方曉. 黑雲起南山, 東風吹作雨. 著物不聞聲, 曉窓還媚嫵. 雨中春睡罷, 起坐還多感. 殘雲無思極, 低傍南窓暗. 遇景眞似畫, 得詩清絕塵. 喜來發大笑, 驚倒四隣人. 里巷樂新年, 壺觴會甥姪. 誰念倦游人, 天涯經此日. 雨後百物變, 客愁隨眼新. 宦游有何樂, 歸期當及春. 苟合既非意, 欲行先自愁. 今宵得佳夢, 我馬且徐驅. 出處士所重, 久速非苟然. 同寮莫怪我, 無補苦留連. 談笑非人間, 風流是[一作九]天上. 春來頻入夢, 夢罷還惆悵. 潔身亦細事, 大義不可讓. 勿謂一命士, 未足慰黎元.”

## (2) 분운에의 차운

한 사람이 분운하여 연작한 시에 다른 사람이 차운하여 같은 수의 시를 짓는 일도 있다. 이것은 차운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분운과 관계된 면이 있어 여기 소개한다. 다른 사람의 분운에 차운한 유명한 예로는 김상헌(金尙憲)의 사례가 있다.<sup>23)</sup>

## (3) 분운 연장(分韻聯章)

시회와 소집(小集)에서는 분운하여 연장(聯章)하는 일이 많다. 앞서 이제현의 「신 원외가 북상하는 것을 전송하는 서[送辛員外北上序]」에 보면, ‘신 원외’를 전송하는 모임에 모인 28명이 분운 연장하였다는 기록이 이른 예이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의 분운은 이 연장의 방식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 (4) 분운 차정(差定) 부시

시회나 소집에서 분운 부시하지 않고, 분운하여 여러 사람에게 운자를 차정하여 부시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고려 말 하운원(河允源, ?~1376)이 원주목사를 그만두고 떠날 때 조계선사 운감(云鑑)이 5언율시 1수를 적어주자, 하운원은 그것을 분운하여 여러 사대부들에게 작시를 요청하였다. 이때 김구용(金九容)과 정몽주(鄭夢周)는 강남에 있어서 훗날 글자를 배정받아 시를 지었다.<sup>24)</sup> 또한 박진(朴晉)의 여묘시권(廬墓詩卷)은 박진의 부친의 유작을 분운하여 박진의 외조카 최직지(崔直之)가 진신사대부들에게 작시를 청탁해서 이룬 것이다.

23) 金尙憲, 「前年春 持國在安山田舍 以爲農山澗曲, 臥病海雲邊’分韻作古詩寄余 未及酬和 今年余退居石室 閑中飄詠 愈覺有味 遂追次其韻 聊以述懷云」(十首), 『淸陰集』 권8 五言古詩; 金尙憲, 「次曹侍御士窮見節義分韻之作」(五首), 『淸陰集』 권11 雪窖集.

24) 金九容, 「原州河公政成上京 道境鑑上人思慕之餘 詩見寄 河公分韻其詩 爲贈摺紳諸公皆賦 予與達可方回自江南 河公請賦得南字 作小詩」(二首○朴公尙衷序之), 『楊若齋學吟集』 卷上.

### 3. 고려 말 조선 초 문인-지식인 집단의 형성과 분운

이제현의 「신 원외가 북상하는 것을 전송하는 서[送辛員外北上序]」에서 드러난 분운 연장의 사실 이후,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시회나 전별연 등에 서 분운 연장의 작시가 크게 유행하였다. 과거제의 실시로 지식인의 숫자가 늘고 좌주-문생의 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집단이 형성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운 연장이 행해진 장(場, place)을 중심으로 고려 말, 조선 초의 분운 연장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외직으로 나가는 관료나 과거 후 귀근하는 유생에게 전별연을 베풀면서 분운 연장하는 일이 정착되었다.

정도전의 「송양광안렴유정랑시서(送楊廣按廉庾正郎詩序)」는 전자의 예이다.<sup>25)</sup> 대개 1385년(우왕 11, 을축) 45세 때, 대사성 봉익대부 권근(權近)[12월, 권근이 봉익대부 성균대사성 진현관제학 지제교(奉翊大夫成均大司成進賢館提學知製敎)에 제수되었다] 이하 28인이 분운하여 시를 짓자 유공이 정도전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이다. 이때 분운은 유 정랑과 인척 관계인 전대제(待製) 윤공(尹公)이 지은 시의 글자를 제비뽑은 것이다.<sup>26)</sup> 윤공의 시에 보이는 정헌공(正獻公)은 정헌대부 국학대사성 문한사학 치사(正獻大夫國學大司成文翰司學致仕)의 윤해(尹諧)[시호 文貞]이고, 대제 윤공은 해평인 윤해의 증손자, 윤택(尹澤)의 손자, 윤소종(尹紹宗, 1345~1393)을 말한다.<sup>27)</sup> 또한 유정랑은 곧 유양준(庾良俊)을 가리키는 듯하다. 유양준은 윤해의 딸이 영평군(鈴平郡) 사람 윤선좌(尹宣佐)[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평리 예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僉議評理藝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으로 치사]와의 사이에서 얻은 딸에게 장가든 인물이다.<sup>28)</sup>

25) 鄭道傳, 「送楊廣按廉庾正郎詩序」, 『三峯集』 권3 序; 『동문선』 권89 序.

26) “念昔吾家正獻公, 觀風楊廣至原中. 外孫玄壻今持節, 舊宅春光思不窮.”

27) 李穡, 「栗亭先生尹文貞公墓誌銘 并序」, 『동문선』 권127 墓誌.

28) 李穀, 「高麗國匡靖大夫 僉議評理 藝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 上護軍致仕尹公墓誌銘」, 『稼亭集』 권12 墓誌銘; 『東文選』 권125.

권근이 1395년(을해, 태조 4) 8월 16일에 작성한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는 판중추 이공을 전송하는 서[送判中樞李公觀察全羅詩序]」도 전자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분운 시권을 장식한 글이다.<sup>29)</sup> 판중추 이공은 바로 이무(李茂, ?~1409)이다. 당시 태조는 지방의 행정을 중앙권력에 흡수하기 위하여 측근을 관찰사로 파견하였다.<sup>30)</sup> 이무의 전별연에서 정도전은 시를 지어 노자로 주었고, 진신사대부들이 분운하여 화답하였으며, 이무는 권근에게 그 서문을 부탁한 것이다.<sup>31)</sup>

권근의 「안동(安東)으로 근친 가는 생원 이문화(李文和)를 전송하는 서[送生員李文和歸觀安東序]」는 후자의 한 예이다.<sup>32)</sup> 이문화는 우왕 경신년(1380) 5월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색(李穡)은 이문화가 경신과에 장원 급제한 후 「백중설, 이장원에게 증별하다(伯中說贈李狀元別)」를 주었다.<sup>33)</sup> 이때 “진신 선생(搢紳先生) 및 국학 제생(國學諸生)과 생(生)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노두(老杜, 杜甫)의 「추흥시(秋興詩)」 한 편을 가지고 분운하여 시를 지어 그 귀성(歸省)을 찬미하였는데, 나도 역시 수(樹)자로 지었다.”고 하였다. 두보의 「추흥(秋興)」 8수는 766년에 기주(夔州)에서 지은 것으로, 두보의 칠언율시 가운데서도 걸작으로 손꼽힌다. 권근 등은 그 첫 수를 분운의 재료로 사용하였다.<sup>34)</sup> 권근이 당시 지은 「수(樹)자로 운을 단 옛 사람의 시에 차운하여 근친가는 생원(生員) 이문화(李文和)를 전송하다.[樹字用古人韻 送生員李文和歸觀]」 시는 『양촌집』 권4에 실려 있다.<sup>35)</sup>

29) 권근, 「送判中樞李公觀察全羅詩序」, 『陽村集』 권17 序類.

30) 『태조실록』 권8권, 태조 4년(1395, 을해) 8월 14일(을해). “이무(李茂)로 전라도 도관찰출척사(全羅道都觀察黜陟使)를, 이빈(李彬)으로 판중추원사를, 오사충(吳思忠)으로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를 삼았다.”

31) 권근, 「送判中樞李公觀察全羅詩序」. “主上又以全羅之民思公不置, 復授以節鉞, 往觀察于是道. 將行, 三峯鄭相國賦詩以驢, 縉紳諸公分韻而和. 公以予相知最久, 委以序.”

32) 권근, 「送生員李文和歸觀安東序」, 『陽村集』 권15 序類, 한국문집총간 7.

33) 李穡, 「伯中說贈李狀元別」, 『동문선』 권97 說.

34) 杜甫, 「秋興其一」. “玉露凋傷楓樹林, 巫山巫峽氣蕭森. 江間波浪兼天湧, 塞上風雲接地陰. 叢菊兩開他日淚, 孤舟一繫故園心. 寒衣處處催刀尺, 白帝城高急暮砧.”

35) 권근, 「樹字用古人韻 送生員李文和歸觀」, 『陽村集』 卷4 詩. “昨夜秋風來, 蕭蕭入庭樹. 遊子戀庭闈, 長揖飄然去.”

(2) 고려 말에는 명족회(名簇會) 등 좌주를 위한 연회에서 분운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명족회는 문생들이 각자 이름을 써 넣은 족자를 좌주에게 바치면서 연회를 베푸는 모임을 말한다. 공민왕은 재위 18년(1369)에 좌주를 위한 연회의 폐단을 개혁하려고 중국의 회시(會試) 제도에 따르고 잔치 차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sup>36)</sup> 하지만 그 후 명족회는 부활하였다. 명족회에서 연구를

36)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긴 제목의 시를 『목은집』 권24에 남겼다. 「지정(至正) 계사년(1353) 4월에 익재(益齋, 李齊賢) 선생과 양파(陽坡, 洪彦博) 선생이 공거(貢擧)를 주관하였는데 연향(燕享)은 없었고, 내가 동년(同年)들과 함께 행렬(行列)을 이루고 있다가 파하고 나서는 곧바로 집에 가서 쉬었으니, 매우 쓸쓸하였다. 을미년(1355)에는 남촌(南村) 이 정승(李政丞, 李公遂)과 성동(星洞) 안 정당(安政堂, 安輔)이 공거를 주관하였는데, 이때 이공(李公)의 고모는 바로 기황후(奇皇后)의 어머니였으므로, 인하여 수상(壽觴)을 올린 때문에 두 학사는 모두 연향을 베풀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열에 일곱여덟은 줄인 셈이었다. 정유년(1357)의 과거에는 이초은(李樵隱, 李仁復)과 김사정(金思亭, 金希祖)이 공거를 주관하였는데, 이초은은 연향을 간략하게 베풀었고, 김사정 또한 그와 같이 하였으며, 다만 일수(日數)가 많았을 뿐이다. 경자년(1360) 과거에는 김 사계(金四宰, 金得培)와 한 상의(韓商議, 韓方信)가 공거를 주관하였는데, 이들은 대략 예전의 규모가 있었다. 임인년(1362)에는 대가(大駕)가 청주(淸州)에 있었는데, 홍 양파(洪陽坡, 洪彦博)와 유 상의(柳商議, 柳淑)가 공거를 주관하였는데, 계사년처럼 연향이 없었다. 을사년(1365)에는 이 초은(이인복)이 제차 지공거(知貢擧)가 되고, 내가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었으며, 기유년(1369)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신해년(1371)에는 내가 지공거가 되고, 전 정당(田政堂, 田祿生)이 동지공거가 되었다. 갑인년(1374)에는 이 평리(李評理, 李茂方)와 염 정당(廉政堂, 廉興邦)이 공거를 주관하였는데, 모두 연향을 베풀지 않았다. 금상(金上)이 즉위하자, 말하는 이들이 양파(홍언박)에게 허물을 돌리고 다시 연향을 베풀 것이 지금 두어 차례 과거에서 시행되었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소비하였으므로, 말하는 이들이 또 이를 그르게 여겨 다시 기유년 과거 때처럼 할 것을 청하였다. 이윽고 또 지금 경신년(1380)의 주사(主司)들은 모두 아버지가 생존하여 외당 현수(獻壽)를 행해야 하는데, 성균시원(成均試員) 서 승지(徐承旨)는 부모가 향리(鄕里)에 있는 관제로 계사년처럼 하기를 청하였고, 염공(廉公, 廉興邦)과 박공(朴公, 朴彤)은 모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터라서 옛 규정에 따라 연향을 베풀었다. 내가 염공에게는 인친(姻親)이 되고, 박공에게는 종백(宗伯)이 되는 처지이니, 법으로는 외당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하거니와, 앉아서 생각건대 내가 이 연회에 참여한 것은 오직 을미년 안 정당의 한 자리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며칠 밤을 삭신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통 붙이지 못하였는지라, 관대(冠帶)를 갖추고 존장(尊長) 앞에서 기거(起居)하기가 어렵겠으므로, 시 한 편을 읊어 이루어 동정(東亭) 좌하(座下)에 삼가 바치오니, 전람(電覽)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시에서 이 책은 공민왕이 서거한 후의 상황에 대해 “갑자기 선왕께서 승하하시고 난 뒤로는, 삼 년을 안 바꾼단 게 헛말일 뿐이었네. 병진년 정사년 연달아 두 차례 과거엔, 조정의 유사 숭상함을 모두 하례한 가운데, 양 삶고 계피 쌓고 비단꽃도 만들었으니, 풍성케 하여 화려함 겨루자는 게 아니요, 태평성대의 기약이 바로 오늘에 있건만, 머리 돌리니 현릉엔 저녁놀만 나는구나.[忽爾龍昇鼎湖水, 三年無改虛語耳. 丙辰丁巳連兩科, 共賀朝廷尚儒士. 烹羊積桂銷裁花, 致豐匪欲爭奢華.]

짓거나<sup>37)</sup> 분운 연장을 하였다.

권근이 1393년 7월에 작성한 「문하좌시중 평양 조공 준을 축하하는 시의 서[賀門下左侍中平壤趙公]」는 조준을 위한 명족회의 분운 연장에 쓴 서문이다.<sup>38)</sup>

조준은 경오년 여름에 문하평리(門下評理)로서 문형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 이무방은 검교시중(檢校侍中)을 지내고 나이 80세가 되었다. 임신년 가을에 역성혁명이 있는 뒤 이무방은 문생을 거느리고 조준을 청하여 그의 집에서 잔치하며 시 한 수를 지어 시중에 제배(除拜)된 것을 축하하고, 그의 동문(同門) 및 조정의 문사들이 운자를 나누어 시를 지어 축(軸)을 이루었다. 다음 해(1393, 태조) 여름, 조준이 또 공사(貢士)를 맡게 되자, 조준과 동방(同榜)인 병조정랑 송인(宋因)이 그 시축에 서문을 써달라고 권근에게 부탁하였다. 이무방이 주선하여 열린 이 조준의 명족회에서 분운 작시한 예로는 성석린(成石璘)의 시가 전한다.<sup>39)</sup>

太平之期在今日,回首玄陵飛暮霞”라고 하였다. 우왕 2년 병진년(1376)에는 정당문학 홍중선(洪仲宣)이 지공거가 되고 지밀직(知密直) 한수(韓脩)가 동지공거가 되어 정충(鄭擘) 등 33인에게 급제를 내렸고, 우왕 3년 정사년(1377)에는 죽성군(竹城君) 안극인(安克仁)이 지공거가 되고 정당문학 권중화(權仲和)가 동지공거가 되어 성석연(成石瑑) 등 33인에게 급제를 내렸다.

37) 이색의 「죽성군(竹城君, 安克仁)이 문생 급제자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름을 적은 죽자를 좌주(座主)에게 바쳤기 때문이었다. 두 분 시중(侍中)[안극인과 權仲和]은 동쪽을 향하였고, 판삼사(判三司) 성 정당(成政堂)과 한 정당(韓政堂) 및 나는 북쪽에 있었고, 정 남경(鄭南京)과 민 밀직(閔密直)과 안 밀직(安密直)은 서쪽을 향하였고, 문생들은 동쪽 대청에 있었다. 기악(伎樂)이 교대로 울리는 가운데 연구(聯句)를 지으며 매우 즐겁게 노닐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시가 참고로 된다. 죽성군은 공민왕비 정비 안씨(定妃安氏, ?~1428)의 부친 안극인(安克仁, ?~1384)을 말한다. 구 번역본이 죽성군을 안축의 막내아들로서 이색과는 신사년 진사시의 동방 안종원(安宗源, ?~1383)으로 주석한 것은 一失이다. 안종원은 흥녕군에 봉해지고 후에 순흥군에 개봉되었다. 또 죽성을 죽계라고 본 것도 잘못이다. 죽성은 죽산을 가리킨다.

38) 權近, 「賀門下左侍中平壤趙公詩序」, 『陽村集』 권16 序類.

39) 成石璘, 「賀趙侍中邀座主開讌」, 『동문선』 권22 칠언절구. “得士方知座主賢, 侍中稱壽侍中前. 天教好雨留住客, 風送飛花落舞筵.” 구 민족문화추진회의 번역본에 “자기를 과거에 합격시킨 시관(試官)을 좌주(座主)라 하며, 이 시는 조준이 이색을 초청한 연회에서 지은 것이다.”라고 주석하였으나, 一失인 듯하다. 한편 성석린의 이 시에 좌주의 사람들이 탄복하였다는 말을 듣고 형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용(成石容)은 “선비가 재주를 꺼림은 셈 많은 계집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심하거든 어찌하여 너는 사양하지 않고, 감히 먼저 시를 지어 몸가짐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였다. 이것은 당시는 말세 사람들이 흔히 재주 있음을 시기하여 서로 해하는 까닭으로 이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한다.

(3) 고려 말에는 승려를 중심으로 분운 연장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최해(崔滄)가 1320년(충숙왕 7)경에 작성한 「송 반룡여대사서(送盤龍如大師序)」는 그 일례이다. 이 글은 『졸고천백』과 『동문선』에 실려 있다.<sup>40)</sup> 이 글은 여대사(如大師)가 경북 고령에 있는 화엄종 도량인 반룡정사 주지로 나갈 때 여러 승려들과 사대부들이 분운 연장하자, 그 서문으로 쓴 것이다. 여대사는 동암(東菴) 문정공(文定公) 이진(李璘, 1244~1321, 초명 李芳衍)의 둘째 아들이자, 당시 왕부단사관(王府斷事官) 국상(國相) 익재(益齋) 이제현의 형이다.<sup>41)</sup> 법명은 각해(覺海)·향여(向如)이고 호는 목암(木庵)이다. 당대의 명사들과 사귀어 회안군(淮安君) 왕족 왕온(王暉)의 첫째 아들, 순(珣)과 그 아우 창원공(昌原公) 왕온의 둘째 아들, 우(瑀) 등이 대사를 경애하였다.<sup>42)</sup> 뒷날 이승인과도 교류하였다. 반룡사는 이인로의 큰 숙부로 고려 명종의 신임을 얻었던 요일(寥一) [一公]이 1197년(명종 27) 9월에 두경승(杜景升)이 관련된 최충현(崔忠獻)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영남으로 유배되어 주석한 곳이다.<sup>43)</sup>

한편 이곡(李穀)은 수정장로(水精長老)를 위한 전별연에서 이루어진 분운 연장에 「수정 장로를 전송한 시의 서문(送水精長老序)」을 작성하였다.<sup>44)</sup> 수

40) 崔滄, 「送盤龍如大師序」, 『拙稿千百』 권1; 『東文選』 권84. “泰定初, 元傳賢首教觀大沙門, 諸講主因者宿請, 咸以社無主法, 推出法水堂頭覺海如公, 且諗都僉議使司而僉議亦允, 於是師不能峻辭, 將戒日以行, 予往與別. 客有分韻爲詩以贈者, 先屬予爲序.”

41) 이제현의 형으로 이관(李縉)이 있다. 이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다.

42) 저서로 『白花道場發願文略解』,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華嚴經觀音知識品』 등이 있다.

43) 반룡사는 고령읍에서 국도 26호선을 따라 쌍림면으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반룡사로 진입하는 도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월막리를 지나면 반룡사로 향하게 된다. 부근에 이인로(李仁老, 1152-1220)가 월막리에 머물면서 놀았다는 한림대가 있다. 이인로의 조부 이언림(李彦林)에게 광진(光鎭), 요일, 백선(伯仙) 등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인로는 백선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인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요일의 손에서 자랐다. 무신난 때에는 승려가 되기도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고령현 불우(佛宇) 조 반룡사 조항에 이인로의 다음 시가 전한다. “봄은 갔건만 꽃은 아직 남아 있고, 하늘은 개었건만 골짜기는 스스로 그늘졌구나. 소쩍새는 대낮에도 울어대니, 비로소 심산유곡에 복거하고 있음을 깨닫겠노라. [春去花猶在天晴谷自陰 杜鵑啼白晝 始覺卜居深]”

44) 李穀, 「送水精長老序」, 『稼亭集』 권8 序. “今修公自童其髮, 足不一涉名利之途, 往還山水之中, 蕭洒乎容儀, 清絕乎章句. 雖使文公復生, 必不與之絕矣. 況余不肖, 竊揖高風, 猶恨識之不早, 何暇議於其間哉? 噫! 交游日淺, 而遽告以嶺南之行. 且嶺南壯觀, 甲東國而鍾頭流, 頭流山中,



정장로 수공(修公)은 곧 환암 혼수(幻菴 混修/混脩, 1320~1392)를 가리킨다. 혼수는 공민왕에게 법요를 가르쳤고, 우왕 초에 송광사 주지를 지냈으며, 1383년(우왕 9)에 국사(國師)가 되었다.<sup>45)</sup>

박상충(朴尙衷)의 「증 조계선사 운감시 서(贈曹溪禪師云鑑詩序)」는 고려 말에 유학자들과 불문 석자들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호례이다.<sup>46)</sup> 이 글은, 원주(原州) 도경감사(道境鑑師)가 관전교시사(官典校寺事) 우문관직제학(判典校寺事右文館直提學) 하공(河公)에게 준 증별시(5언율시 1수)를 원운으로 삼아 사대부들이 분운 연장한 시축에, 박상충이 서문을 써 준 것이다. 하공(河公)은 곧 하운원(河允源, ?~1376)이다.<sup>47)</sup>

하운원이 원주목사에서 체직되었을 때 치악산의 조계선사 운감(云鑑)이 5언율시 1수를 적어 주었다. 이 시는 정약용이 『목민심서』 12 해관육조(解官六條) 6 유애(遺愛) 조항에서 전반 4구를 소개한 일이 있는데, 전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온다.<sup>48)</sup> 운감 선사는 법호가 도경(道境)이며, 문헌에 감사(鑑師)로 약칭되어 있다. 혹 ‘天鑑’이나 ‘之鑑’으로 표기된 것은 오자인 듯하다. 운감 선사의 시가 5언 8구의 율시이므로, 분운에 참여한 사람은 무려 40명에 달하였을 것이다. 그 가운데 몇몇 시를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민왕 때 학교를 다시 일으키고, 김구용(金九容), 정몽주(鄭夢周), 박상충(朴尙衷), 박익중(朴宜中), 이승인(李崇仁) 등이 다른 관직에 있으면서 학관

水精爲大叢林，休錫于茲，非旁通釋教爲衆所推者，不能也。此行也，非惟適山水雅志，實釋子得意行道之秋也。吾黨區區臨歧之恨，安足顧藉耶？於是席于東郊，分韻賦詩，使余序之。”

- 45) 이색이 1378년(우왕 4) 5월 26일에 「환암기(幻菴記)」를 지어 주었다. 입적 후 권근이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 并序」를 지었다. 權近,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 并序」, 『陽村集』 권37.
- 46) 朴尙衷, 「贈曹溪禪師云鑑詩序」, 『동문선』 권87 序. “今判典校寺事右文館直提學河公，一日過余，語及原之道境鑑師，因頌其所寄詩，且曰：‘吾之知鑑師久，在原之日亦久，師未嘗一以絲毫事干，吾亦未嘗以久要厚於師，今乃寄余詩焉。其辭雖若過譽者，亦可見其愛我之深也。而吾無以爲謝，則欲請之搢紳間，分韻賦詩爲一軸以贈之。子盍題其首乎?’”
- 47) 본관은 진주, 찬성사 증(楫)의 아들이다. 충혜왕 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전교교감(典校校勘) 등을 지냈다. 원주목사와 상주목사를 역임하였고,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듬해 전리총랑(典理摠郞)으로 개경 수복에 공을 세워 이듬해 개경수복 2등 공신에 봉해졌다. 신돈(辛旽)이 권세를 부릴 때 아첨하지 않았다. 1375년(우왕 1) 사헌부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여막을 짓고 살다가 죽었다.
- 4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강원도 원주목 명환(名宦)조 하운원(河允源) 조항. “兒戲在母側，恩愛尙未知。母在兒啼號，無乃逼寒飢。北原往日政，仁德乃如斯。赫然千載下，再頌召南詩。” 이종목, 『한시마중』(태학사, 2012)도 전편을 소개하였다.

을 겸하게 하였으니,<sup>49)</sup> 이들이 모두 분운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가운데는 김구용, 정몽주의 시가 전한다. 그밖에 원천석(元天錫), 민제(閔霽), 승려 조이(祖異)의 시도 남아 있다.

- (a) 李玖 시.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 (b) 鄭夢周, 「原州牧使河允源湛之詩軸 和僧天(\*)鑑 分韻得乃字」, 『圃隱集』 권3 拾遺.
- (c) 金九容, 「原州河公政成上京 道境鑑上人思慕之餘 詩見寄 河公分韻其詩 爲贈搢紳諸公皆賦 予與達可方回自江南 河公請賦得南字 作小詩」 (二首○朴公尙衷序之), 『惕若齋學吟集』 卷上.
- (d) 元天錫, 「次道境詩韻 禪師之(\*)云鑑」, 『耘谷行錄』 卷1 詩.
- (e) 閔霽, 「贈曹溪禪師云鑑」, 『東文選』 권5 五言古詩.
- (f) 釋祖異,<sup>50)</sup> 「贈曹溪禪師云鑑得無字」, 『동문선』 권10 오언율시.

조선 초(홍무 27년) 가을 8월 2일(己巳)에 권근은 신인종(神印宗)의 승려 옥명(玉明)을 위해 「명 상인(明上人)을 전송하는 시(詩)의 서(序)」를 작성하여 주었다.<sup>51)</sup> 옥명 상인은 서울의 현성사(賢聖寺)에 있으면서 권근을 자주 찾았다. 그러다가 고향 경주로 근친하러 가자, 채주(祭酒) 장공(張公)이 시를 지어 주었고, 악정(樂正) 유공(柳公) 이하 및 박사(博士)와 제유(諸儒)들이 모두 분운하여 시를 지었다.<sup>52)</sup>

49) 權近, 「牧隱先生李文靖公行狀」, 『陽村集』 권40 行狀. “初, 自辛丑經兵之後, 學校廢弛, 王欲復興, 改創成均于崇文館之舊址, 以講授員少, 擇一時經術之士若永嘉金九容, 烏川鄭夢周, 潘陽朴尙衷, 密陽朴宜中, 京山李崇仁等, 皆以他官兼學官. 以公爲之長, 兼大司成, 自公始也. 明年戊申春, 四方學者彙集, 諸公分經授業, 每日講畢, 相與論難疑義, 各臻其極.”

50) 태고 보우 선사의 문도에 국사(國師) 지웅존자 혼수(智雄尊者混脩), 왕사(王師) 원응존자 찬영(圓應尊者 燦英), 조이(祖異), 원규(元珪), 현엄(玄嚴) 등이 있었다.

51) 權近, 「送明上人詩序」, 『陽村集』 권17 序類.

52) 권근도 별도로 「신인종 옥명상인을 전송한다」는 장편 오언고시를 남겼는데, 분운의 시인지는 알 수 없다. 權近, 「送神印宗玉明上人」, 『陽村集』 권7 詩類 南行錄.

(4) 고려 말, 조선 초에는 국왕을 호종하는 문신들이 국왕을 위해 송축한 시에 호종신들이 분운 작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윤소종(尹紹宗)의 칠언고시 「주상의 거가(車駕)가 송헌(松軒) 이 시중(이성계)의 저(邸)에 임행하시매 조정의 여러분들이 다 시를 지어 하례하옵는데 기(幾)자 운을 얻고서[伏觀車駕臨幸松軒李侍中第薦紳諸公咸作詩以賀得幾字]」라는 시는 공양왕 때 제신들이 송축하고 분운하여 지은 시 가운데 하나다.<sup>53)</sup> 상성오미운(上聲五尾韻) 18개 글자를 사용하여, 일운도저 하였다. (虺, 悱, 辰, 曄, 黷, 菲, 焯, 篚, 鬼, 葦, 壘, 幾, 尾, 匪, 裴, 斐, 隄, 偉)

권근이 1397년(정축, 태조 6) 10월 하한(下澣)에 지은 「맹 선생에게 증정한 시집의 서[贈孟先生詩卷序]」라는 글이 있다.<sup>54)</sup> 맹 선생은 맹희도(孟希道)로, 맹사성의 부친이다. 조선에 들어와 진주(珍州) 수령을 지냈으나, 온수(溫水) 즉 온양으로 은둔하였다. 1396년에 태조가 온수에 거동였을 때 읍시한 수를 지어 성덕을 찬양하자, 정도전과 조준 등이 분운하여 시를 지었다. 권근은 맹희도와 함께 이인복(李仁復)과 이색(李穡)을 좌주로 하되, 맹희도가 을사년에 급제한 데 비해 권근은 기사년에 급제하였다. 또 맹희도의 큰 아들 맹사성과 그 아우 맹사겸(孟思謙)은 모두 권근에게 배웠으며, 우왕 12년(병인, 1386)과 우왕 14년(무진, 1388)에 권근이 시관으로 맡았을 때 각각 급제하였다.

한편 온수 호종 때 조준은 오언고시 「맹상서 시축에 제하다. 민(民)자를

53) 尹紹宗, 「伏觀車駕臨幸松軒李侍中第薦紳諸公咸作詩以賀得幾字」, 『동문선』 권8. “唐季開國到明興, 玄陵夢斷維熊虺. 三十一朝統中絕, 辛氏二世人憤悱. 公奮絳侯梁公忠, 神孫反正御丹旆. 在天神聖復血食, 混沌重開天地曄. 訖謨更化同勗業, 赤心光明無晦黷. 私田害革經界正, 食豐兵雄增俸菲. 置學京坊盡鄉縣, 選立師官文教煒. 西鄙北鄙絃歌聲, 東倭南蠻琛厥篚. 漕斷陸輓四十年, 漁鹽利通來流鬼. 萬戰四散沿邊民, 咸還鄉墟墾荊葦. 經筵大儒侍朝夕, 二帝三王陳壘臺. 輔養聖德日日新, 周公之後曾有幾. 西山衍義進東宮, 明德新民窮首尾. 保傳賓友盡夔龍, 出入起居寧比匪. 萬世大平開自公, 中興政治實天棊. 帝嘉匡復特勞賜, 三韓忠義公有斐. 裴司空第趙普堂, 未舉明主三代趨. 公拜卜畫獻萬壽, 宗勛永與伊周偉.”

54) 權近, 「贈孟先生詩卷序」, 『陽村集』 권17 序類. “丙子春, 駕幸溫水, 卽先生棲隱之鄉也. 先生於是欣觀天光, 頌揚聖德, 爲賦唐律一篇以獻. 扈從諸學士三峯鄭相國首占天字, 而令諸公分韻各賦. 右政丞平壤伯趙公而下凡若干人, 春容乎大篇, 高潔乎短章, 如藹春雲, 如編群玉, 其所以誦詠先生之高致者至矣. 時其子壯元爲禮曹議郎, 予爲兼典書, 携以來請序. 予適有上國之行, 不暇爲也. 明年既還, 先生又來京請之, 予不敢辭.”

뽑았다[題孟尙書詩軸 占民字],」를 지었다.<sup>55)</sup> 처음 4구는 상평성 十灰운이니 별도의 시이나,<sup>56)</sup> 수습할 때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권근은 당시 「금지(禁字) 운을 얻어 맹 선생 회도의 시권에 쓴다[得禁字 題孟先生詩卷],」를 남겼다.<sup>57)</sup>

(5)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내외간상을 당하여 시묘 생활하는 인사를 위해 사대부들이 분운 작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박진(朴晉)은 호를 죽정(竹亭)이라 하는데, 청도(淸道) 군수로 있을 때 부친이 위독하자 사직하고 부친을 구호하다가 부친이 작고하자 3년간 시묘 생활을 행한 인물이다.<sup>58)</sup> 권근이 1399년(정종 1, 기묘) 12월 1일에 지은 「여묘 사는 박 청도에게 주는 시의 서[贈朴淸道廬墓詩序],」는 박진이 부친의 유작시를 분운하여 당시의 진신사대부들에게 청해 받은 시들을 모은 시권에 서문을 써 준 것이다.<sup>59)</sup> 박진의 유작시는 7언 절구로,<sup>60)</sup> 교서랑(校書郎) 최직지(崔直之)[최담(崔灑)의 네 아들 匡之·直之·得之·德之 가운데 둘

55) 趙浚, 「題孟尙書詩軸 占民字」, 『松堂集』 권2 五言古詩, 한국문집총간 6. “偃仰夷惠間, 高節橫秋旻. 顧子參佐命, 墻面秉陶鈞. 蚊背負山岳, 日夜心輪困. 固乏經濟策, 其奈澤斯民. 綠野清秋月, 楊江日暮春. 主恩不可負, 悵望空逡巡[楊江有書堂故云爾.]”

56) “淵明早休官, 好賦歸去來. 春盡田園蕪, 風來五柳開.”

57) 權近, 「得禁字 題孟先生詩卷」, 『양촌집』 권8 詩類. “早賦風塵滿面侵, 掛冠故與浩難禁. 事親養志終廬墓, 教子傳經豈貴金. 投杖青山晴更好, 垂綸碧磻淨愈深. 林蔬每遣家童拾, 村酒相過野老斟. 庭草不除俱得意, 嶺雲常在共無心. 從今更展同時策, 須佐明君布德音.”

58) 1398년(조선 태조 7, 무인)에 전주부사 안공이 그의 효행을 보고하여, 조정에서는 전주시 남문거리에 효자비(孝子碑)를 세우게 하였다. 이 비는 지금 전주시 교동 전주향교 앞에 이긴 되어 있다. 별도로 순조 5년 을축(1805년) 후손 필성이 지은 「全州府孝子朴晉旌闈記」가 비각에 걸려 있다.

59) 權近, 「贈朴淸道廬墓詩序」, 『陽村集』 권20 序類. “校書郎崔直之以其外大父朴君臨絕遺子詩一絕示予曰: ‘吾外祖早入大學, 補經德齋, 學既通, 應舉不第, 退而不求仕, 家于完山, 嘉遯自樂, 不惑於佛神妖誕之說, 篤信斯道之正, 年至八十, 康強無恙. 有男曰晉, 中進士, 仕內侍, 出宰淸道, 女則吾母也. 吾父與吾昆弟聯擢科第, 躋于仕版, 以榮于家, 實惟我祖翁訓誨之力是賴耳. 淸道勇亦且六旬, 悶親之老, 棄官歸侍, 修滸隨奉湯藥, 朝夕惟謹. 及有疾將殆, 賦詩以示, 其辭曰: ‘八十年當臥蟻床, 六旬孝子藥先嘗. 死生存命終難避, 近汝慈墳立壽堂.’ 明日遂終. 淸道廬墓三年, 都觀察使成公, 完山府伯安公嘉其孝行, 旌表門閭, 爲鄉黨榮已極矣. 舅氏乃欲分韻求諸縉紳之作, 以耀先君潛德於無窮, 使人走千里抵京師, 以囑直之. 直之亦不勝凱風寒泉之感, 歷謁縉紳請之矣. 是不可無序. ……’”

60) “八十年當臥蟻床, 六旬孝子藥先嘗. 死生存命終難避, 近汝慈墳立壽堂.”

째]가 그의 외대부가 임종 때 박진에게 보인 것이라고 한다. 박진의 여묘시권에 들어 있었을 시로서 과안한 예로는 이행(李行, 1352~1432)의 시가 있다. 수(壽)자를 뽑아 거성 二十六有운을 이용하였다.<sup>61)</sup>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여묘 시권을 작성하는 관습이 있었던 듯하다. 예를 들면, 변계량(卞季良)의 「김치(金峙)의 여묘(廬墓) 시권에 쓰다[題金(峙)廬墓詩卷]」 2수도 그러한 관습에서 쓴 증시이다.<sup>62)</sup> 그런데 박진의 경우에는 여묘 시권을 추후에 만들면서 진신사대부들에게 분운 차정하여 시를 모은 것이다.

#### 4. 맺는 말

분운은 운자의 강요 때문에 제작자가 자신의 개성이나 성정을 드러내기 어렵다. 하지만 분운은 지식층의 시회와 소집에서 상호간의 유대와 작시 수련을 위해 매우 중시되었다. 한국에서는 그 관습이 대개 원나라 강점기의 고려 중엽에 발아하여 고려 말에 과거제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면서 문인-지식인 집단이 형성된 때에 극성하였다.

고려 중엽에 분운의 창작법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시기 과거에서 과부(科賦)가 매우 중시되어, 문인들이 즉석에서 평측 상간의 여러 운자들 활용하는 것을 평소 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갖가지 연회나 기념의 시축에 분운 연장을 하게 된 것은 시운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문인-지식 인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신흥사대부를 주축으로 하는 문인-지식인 집단이 형성될 때 시회 및 소집에서 분운이 이루어진 여러 양태를 살펴 보았다. 곧, 조선 초 집현전이 성립하기 전까지 문학의 존재 방식과 그 존

61) 李行, 「次朴清道[晉○完山人 號竹亭]廬墓韻 二首」, 『騎牛集』 권1 詩. 제1수. “有德必有壽, 吾觀聖賢句. 強康且樂易, 固自幽潛富. 尚志更無違, 神明能勿佑. 蕭然乘化歸, 終始孰當究.” 제2수. “承家清道公, 偶得我來觀. 一展平生言, 蔚乎有傳授. 又出摺紳詩, 珠玉照衣袖. 促膝讀琅然, 果得使願副. 余何贊一辭, 寫字恐遷就.”

62) 卞季良, 「題金(峙)廬墓詩卷」, 『春亭集』 권3 詩.

재의 장(場)을 살펴본 것이다.

본고에서 다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외직으로 나가는 관료나 과거 후 귀근하는 유생에게 전별연을 베풀면서 분운 연장하는 일이 정착되었다. 이 분운의 방식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2) 고려 말에는 명죽회(名簇會) 등 좌주를 위한 연회에서 분운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좌주문생의 명죽회는 조선시대에 회시 제도가 정착되면서 축소되었다. 따라서 명죽회의 분운 연장은 조선시대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 고려 말에는 승려를 중심으로 분운 연장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았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시승들이 많이 활동하였으며, 심지어 불문(佛門)의 학두(學杜) 전통이 성종 때의 『두시언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 배불론이 대두되면서 승려를 중심으로 하는 분운 연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4) 고려 말, 조선 초에는 국왕을 호종하는 문신들이 국왕을 위해 송축한 시에 호종신들이 분운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선 초에는 군왕을 송축하는 악장이 성행하였지만, 그 아유의 성격이 부정시 되어 군왕 행행시의 송축 악장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따라서 송축시를 이용한 분운 연장은 조선 전기 이후 찾아 볼 수 없다. 조선후기에는 정조의 예에서 드러나듯 어제시(御製詩)를 이용한 분운 작시의 방법이 더 많았던 듯하다.<sup>63)</sup>

63) 正祖, 『夜登芙蓉亭小樓 并小序』, 『弘齋全書』 권6 詩二. “是夜月明, 予謂諸臣曰: ‘原韻有宮林待月輪之句, 卿等泛舟太液可乎?’ 重臣李文源應聲升舟, 從之者十九人, 乃給玉笛壺酒, 沿洄于亭嶼之間, 紗籠三十, 對列樹池邊, 與花光月色, 上下輝映. 御芙蓉亭小樓以觀之. 列侍者閣臣六史官一, 其餘坐池岸, 樓上人與舟中人相語. 榮輔曰: ‘船中雖佳, 不如天上羣仙列侍香案.’ 勉旣曰: ‘春水船如天上坐.’ 文源曰: ‘橋上人行樓上坐, 相看俱是畫圖中.’ 行恁曰: ‘舟中有酒否?’ 文源曰: ‘樽空矣不敢請.’ 予命以小艇載酒以繼之. 民始曰: ‘錦帆得意, 何時下岸?’ 文源曰: ‘此與何時已?’ 有防曰: ‘不可無我吟.’ 樓上舟中岸邊, 呼韻分軸, 應口相和, 須臾篇既圓. 鐫揭芙蓉亭眉: ‘心臺花會又茲樓, 爲是今春可樂遊. 此夜君臣同祝意, 萬年枝上月長留.’” 뒤에 정조는 「밤에 부용정의 소루에 올라서 다시 갑인년에 시를 짓던 규정을 되풀이하여 배 안과 섬 안의 사람들과 더불어 운자를 나누어서 시를 짓다[夜登芙蓉亭小樓 復申甲寅詩令 與舟中嶼中人分韻口呼]」(『弘齋全書』 권6 詩二)를 남겼다. 역시 분운 구호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때 정조는 다음 시를 지었다. “留與諸君飲, 居然月上竿. 莫如今夜好, 同此太平歡. 花暈千重樹, 燈張九曲欄. 金吾仍放夜, 和氣遍長安.” 정약용(丁若鏞)은 「삼가 어제 야등부용정소루부신갑인시령여주중서중인분운구

(5)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내외간상을 당하여 시묘 생활을 할 때 그것을 기념한 시를 만들고 또 분운 연장한 시를 시권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려 말에 주자학적 사대부 예제가 보급되면서 여묘살이가 신흥의 관례로서 정착되어 나온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나온 것이다. 후대에는 여묘살이에서 여기의 시문을 짓는 것을 자제하게 되지만, 고려 말에는 여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문학적 방식이 요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 이후로는 문인-지식인들이 시회와 시사를 갖는 일이 많아져, 후기에는 대단히 번성하였다. 이때에는 분운 구호와 분운 연장 등이 더욱 많았을 것이다. 일부는 문집에 채록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산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고려 말 문인-지식인의 분운도 문집이나 『동문선』에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

분운은 기존의 시를 이용하여 운자를 추첨해서 시를 짓는 방식이다. 이때 분운의 자료가 되는 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고려 말에는 소식과 두보의 시가 경문의 어구와 함께 선호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이에 덧붙여 한유와 황정건의 시 등이 선호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주자의 시를 이용한 분운도 성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문학은 때로는 형식과 장(場)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한문학에서 분운은 특히 문인-지식층이 문학 양식과 기호를 공유하는 장(場)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호시를 화답하다[奉和聖製夜登芙蓉亭小樓復申甲寅詩令與舟中嶼中人分韻口呼]를 지었다. 정조의 어제시 가운데 然자를 골라 下平聲一先운으로 지은 것이다. 丁若鏞, 『奉和聖製夜登芙蓉亭小樓復申甲寅詩令與舟中嶼中人分韻口呼』, 『茶山詩文集』 권2, 심경호 편집, 『정본 여유당전서 1』(다산학술재단, 2012) 수록. “蓮葉輕浮太乙船, 仙官總在鏡中天. 珠徽度曲迷春水, 銀燭成行透夕煙. 千樹花枝承委佩, 三山翠蓋壓芳筵. 盈盈法醞猶餘醉, 乘月歸來御柳邊.”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목은고』, 한국문집총간 3-5, 한국고전번역원, 1988.  
 『삼봉집』, 한국문집총간 5, 한국고전번역원, 1988.  
 『양촌집』, 한국문집총간 7, 한국고전번역원, 1988.  
 『익재난고』, 한국문집총간 2, 한국고전번역원, 1988.  
 『포은집』, 한국문집총간 5, 한국고전번역원, 1988.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고령문화사대계2-사상편』, 200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 『(국역)고려사』, 景仁文化社, 2008-2011.  
 한국고전번역원 편, 『(국역)동문선』, 솔, 1998.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2.  
 심경호 편집, 『정본 여유당전서 1』, 다산학술재단, 2012.  
 심경호, 『삼봉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안대회,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07.  
 유홍준·이태호 편,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조선시대 계획도와 전별시』, 학교재, 2000.  
 이종묵, 『한시마중』, 태학사, 2012.  
 이종호,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한길사, 2004.  
 최병직·정양완·심경호 역, 『증보역주 지천선생집』, 도서출판 선비, 2008.  
 채상식, 『고려후기 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 2. 논문

- 김건근, 「고려시대 기로회 연구」, 『대동한문학』30, 대동한문학회, 2009, 187~224면.  
 김동준, 「금호 임형수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5, 한국한시학회, 2000, 239~271면.  
 박종진, 「고려시기 해동기로회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 현실』66, 한국역사연구회, 2007, 303~336면.  
 심경호, 「閔思平論」, 『韓國漢詩作家研究』I, 한국한시학회, 1995, 337~366면.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民族文化研究』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99~254면.  
 심경호, 「17세기 초반 지성사의 한 단면-지천 최명길과 월사·상촌·계곡 택당」, 『한문학보』18, 우리한문학회, 2008, 337~365면.  
 심경호, 「조선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413~449면.

심경호, 「한국유학자의 문학사조와 문학 활동」; 심경호 외 15명, 『韓國儒學思想大系 IV-文學思想編』, 한국국학진흥원, 예문서원, 2006.

이상하, 「적벽부(赤壁賦)와 소동파(蘇東坡)의 마음」, 『고전산문』,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웹사이트 소식지, 2012.

## A Study on Bun-un(分韻) of the Literati during the Late Goryeo-Early Joseon Period

Sim, Kyung-Ho

It was frequently occurred that literati in pre-modern period wrote poems to broaden the intellectual interchange and to form political groups. This paper is to survey the cases that literati during the late Goryeo-early Joseon period performed Bun-un(分韻) at literary coteries' activities.

Bun-un was highly regarded as it was frequently performed at literary coteries' activities. It was also useful to practice verse writing. In Korea, the Bun-un tradition began around the middle of Goryeo, and prevailed in the late Goryeo as Gwa-geo(科擧, civil service literary examination) started to be fulfilled regularly. It became very usual consequently that they exercised to rhyme out poems readily as Gwa-bu(科賦) was highly valued at Gwa-geo, and as a result groups that could write and enjoy poems using Bun-un were naturally formed. The preface composed by Lee Jehyeon(李齊賢) for Si-chuk(詩軸, a roll of pomes) of Bun-un Yeon-jang(分韻聯章) suggests that not a few such groups existed at that time and they played a important part in political and literary activities as well.

To summarize this paper is the same as follows.

(1) In the late Goryeo-early Joseon period, to perform Bun-un Yeon-jang at farewell parties for those who went local government posts or returned home after finishing Gwa-geo, was regularized and it lasted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2) In the late Goryeo period, there were cases that Bun-un Yeon-jang was performed at parties for Jwa-ju(座主, examiner), but Myeongjokhoe(名簇會) by Jwa-ju and Mun-saeng(門生, pupil) began to decrease as Huesi(會試) system was established in Joseon dynasty.

(3) In the late Goryeo period, there were also cases that Bun-un Yeon-jang was performed by Buddhist monks, but these cases disappeared as religious oppression

for Buddhism began at the beginning of Joseon dynasty.

(4) In the late Goryeo-early Joseon period, there were cases that government officials wrote poems using Bun-un keeping harmony with poems in praise for kings, but these cases disappeared since early Joseon period.

(5) In the late Goryeo-early Joseon period, there were also cases that one edited a collection of poems or of Bun-un Yeon-jang while visiting the tombs of his father or mother since he or she had been dead.

From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literati had lots of chances to exercise Bun-un as literary coteries' activities increased, and it remarkably flour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assumed that there would be lots of cases of Bun-un Gu-ho(口呼) and Yeon-jang at that period. It is notable that literary coteries' activities practicing Bun-un had lots of meaning more than they appeared.

Keywords : Bun-un(分韻), Yeon-jang(聯章), Lee Jehyeon(李齊賢), Jeong Dojeon(鄭道傳), Gwon Geun(權近), Myeongjokhoe(名簇會), Jwa-ju(座主), Literary Coteries' Activity.

접수일자: 2013. 3. 31  
심사기간: 2013. 3. 31~2013. 5. 20  
게재결정: 2013. 5. 20